시 론

이제 깨어나라! 광주여

김정희
전남대 윤리교육과 명예교수

'10년이 지나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다. 1980년 5·18 이후 40년이 지난 광주의 오늘은 어떠한가? 망월동 국립묘지가 성역화되면서 정치인들의 발걸음만 잦아졌을 뿐 광주는 아직도 그 절박하고 비참한 시간 속에 멈춰 있다. 우리가 외부의 힘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면 광주는 영원히 휘청거릴 수밖에 없다. 광주의 오늘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죽은 자는 말이 없는데 산 자들의 상충된 이해관계에 얽히고설켜 밀물처럼 밀려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정치인들의 행태가 역겹다. 이들의 속마음은 뻔하다.

망월동 성전을 욕되게 하는 자는 광주 시민이 아니라고 단죄까지 내렸던 날들을 우리는 기억한다. 이제 광주가 한풀이 장소로 더는 이용되어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한 맺힌 넋을 무차별 받아들여서도 안 될 것이다. 지난날 제도권과 재야 정치인 모두가 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광주를 이용하고 버렸음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다.

호남 사람 과격하다고 비난하고 왕따 시킨 일들이 엊그제이고, 청년들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웠던 것이 어제 같건만, 어찌 벌써 망각하고, 또 다시 찢김을 당하려고 하는지! 광주여 이제 깨어나라! 힘이 있고 없는 차이밖에 모르는 정치꾼들의 속성은 거의 비슷하다. 이들의 간교한 술책과 기만에 의해 광주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지고 닫혀졌다손 치더라도 그 마음 또한 결국 더 나을 것은 없다.

역사의 위기는 인과론에 의한 과학적 인식을 통하여 풀리지 않는다. 그러기에 어둠과 빛의 통로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찾아야 한다. 물이 역류할 수 있듯 때로는 우리의 역사도 퇴보할 수 있으며, 시곗바늘이 멈추듯 때로는 우리의 역사도 전진 아닌 정지 상태에 놓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남 속에서 서로 소통해야 한다. 만남 속에서 미움도 사랑도 생기고, 기쁨도 슬픔도 그리고 오해도 이해도 생길 수 있다.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기 위한 결정의 순간에 이제 광주 사람 스스로가 힘의 싸움에서 벗어나야 한다. 서로의 상처를 수용함으로써 진리를 깨닫고 경청하는 자세로 광주의 미래를 창조해 나가야 한다. 또한 광주 망월동에 묻힌 영혼들을 위로하려면 이제 우리 모두는 인격의 단순성과 용서를 배워야 하며, 그 단순성과 용서 속에서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할 것이다. 궁핍과 충만이 대립되고, 죽음과 죄책감이 대립되는 순간에 진정 필요한 것은 하나가 다른 하나를 품어 안아 주는 용서와 화해의 정신이다.

그 어느 때보다도 공격성과 폭력이 더 증폭된 오늘의 세상 속에서 용서의 필요성은 아주 높게 요구되고 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정의 없이는 평화도 없고 용서 없이는 어떤 정의도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는 자신에게 총을 겨눈 자를 용서하였다. 용서는 불의와 폭력의 원인이 되는 고리를 끊어 내는 것이며, 화해는 폭력과 불의의 마귀 영역에서 빠져나오는 것이다. 용서는 모든 것을 아름답게 포장하고, 악을 없었던 것으로 지우는 어리석은 단순성이 아니다.

용서는 강박성이 아니다. 분노를 억제하는 것은 오히려 갈등과 적개심만을 키울 수 있다. 분노는 무력감에 빠질 수 있고 또 의기소침해질 수 있으며 건강을 해칠 수 있다.

그러나 용서는 용기와 지혜와 더불어 악(惡)을 선(善)으로 바꾼다. 용서는 오히려 우리의 기억에서, 우리의 영혼에서 그리고 가끔 우리의 육신에서 괴로웠던 깊은 불의를 제거하는 것이다.

용서하는 것은 지우는 것이 아니라, 다만 다른 방식으로 상처를 기억하는 것이다. 용서하는 것은 나쁜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 미래를 개방하는 것이다. 그래서 용서는 용기와 많은 힘을 요구하며, 성숙함을 의미한다.

이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거짓이 지배하고 있는 곳에 진리를 말하게 하고, 좌절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으며, 실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일깨우고,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주며, 근심이 있는 곳에 기쁨을 만들게 하는' 프란치스코 성인의 '태양의 노래'처럼 예향의 도시 빛고을 광주여! 연민과 사랑을 통한 줄기찬 도전으로 깨어나라!

의료칼럼

탈모

정민영
동신대 목포한방병원 교수

탈모는 정상적으로 모발이 존재해야 할 부위에 모발이 없는 상태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두피의 굵고 검은 머리털인 성모가 빠지는 것을 의미한다. 탈모는 임상적으로 흉터가 형성되는 것과 형성되지 않는 것,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흉터가 형성되는 탈모는 모낭이 파괴되므로 모발의 재생이 되지 않는 반면, 흉터가 형성되지 않는 탈모는 모낭이 유지되므로 증상 부위가 사라진 후에 모발이 재생한다.

탈모증 중에서 빈도가 가장 높은 것은 남성형, 여성형 탈모증과 원형 탈모증이며, 이들은 모두 흉터가 발생하지 않는다. 탈모 질환에는 빈도가 높은 대머리(남성형 탈모), 여성형 탈모, 원형 탈모증, 휴지기 탈모증 등이 있다.

다음과 같은 사례 중에 해당 사항이 많다면 탈모 치료 및 생활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 우선 매일 100가닥 이상의 모발이 빠지거나 자고 일어나면 베개 주변에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 있을 때이다. 또 머리숱이 줄어든 것 같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듣거나 체감한 경우,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듯한 통증을 느낄 때, 정수리 주변이 가라앉고 머리카락에 힘이 없어지는 느낌이 들 경우이다. 두피가 예민해져 만지면 통증을 느끼거나 심하게 가렵거나 푸석하고, 모발에 윤기가 없고 잘 끊어질 때도 마찬가지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관리와 함께 전문의 진료가 필요하다.

탈모 종류 가운데 눈에 잘 띠는 원형 탈모는 원형의 모양으로 모발이 갑자기 빠지는 증상으로 심한 경우 모발 전체가 빠지거나 눈썹, 속눈썹, 체모 등 전신의 털이 빠질 수도 있다. 증상으로는 다양한 크기의 원형 또는 타원형의 탈모반이 발생한다. 주로 임상 증상으로 진단하고 자가 면역 질환의 동반 여부 확인을 위해 혈액검사가 필요하다.

원형 탈모증의 발병 기전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만큼 근본적인 치료법 역시 아직 정립되지 않은 상태다. 현재 다양한 치료법이 소개되고 있으나 주로 이용되고 있는 치료법으로는 스테로이드제를 이용한 면역 억제와 디페닐사이클로프로페논(DPCP), 미녹시딜, 자외선 요법, 냉동 치료 등이 있다. 원형 탈모증은 저절로 회복되는 경우가 많고 치료 시 예후가 좋은 편이다. 전두 탈모증, 전신 탈모증, 어린 나이의 발병, 손발톱 변형, 아토피를 동반한 경우 예후가 불량할 수 있다.

한의학에서 원형 탈모는 유풍(油風)에 해당되며 한방 변증으로는 혈열생풍(血熱生風), 혈열풍조(血熱風燥), 혈어(血瘀), 비위습열(脾胃濕熱), 간신부족(肝腎不足), 기혈양허(氣血兩虛) 등으로 분류해 병인에 맞는 처방을 활용하고 있다. 현재 임상에서는 한약 처방을 이용한 약물 요법 이외에 침구 요법, 약침 요법, 자락 요법, 한약재를 이용한 국소 도포 요법 등을 치료에 활용하고 있다. 탈모 개선에 도움을 주는 한약재에서 추출한 약물로 두피에 직접 주입하거나 두피 주변을 자극해 모낭 재생 및 발모를 유도하는 두피 치료와 더불어 교란된 면역 체계를 바로잡는 몸 치료까지 다양한 원인 치료를 진행하고 있다.

원형 탈모증 치료에서 내원까지의 유병 기간은 짧을수록 치료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유병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환자의 완치율이 70%이고 6개월을 초과한 환자의 완치율은 44.2%로 조사됐다. 국내 연구에서는 3개월 이내에 치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특히 대다수의 탈모는 증상에 적합한 치료가 꾸준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치료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적극적으로 치료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

기 고

'2021 국제농업박람회'로 초대합니다

박홍재
전남농업기술원장

요즈음 맑고 푸르른 하늘과 황금빛으로 곱게 물든 들녘으로 덕분에 멋진 날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을에 미래를 꿈꾸는 스마트농업 축제인 '2021 국제농업박람회'가 지난 21일부터 전라남도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AI), 자율주행,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정보통신 기술 등으로 인해 세상은 혁신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농업 역시도 이런 기술들과 함께하며 세상을 바꾸는 데 동참하고 있기에 '농업이 세상을 바꾼다. 미래를 꿈꾸는 스마트 농업'이라는 주제로 2021 국제농업박람회를 준비했습니다.

본 박람회는 미래 농업존, 농식품 홍보존, 치유 체험존의 세 개 구역으로 구성되었고, 알차고 멋진 볼거리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박람회의 주제관인 미래 농업존에서는 농업용 로봇, 드론, 스마트 팜·온실·돈사, 밭농업 기계, 센싱, 빅데이터, 물관리 기술들의 전시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 조기경보 시스템, 병해충 잡초 영향 평가 시스템, 온실 통합관제시스템,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 첨단무인자동화 농업생산시범단지에 대한 소개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더불어 무인 트랙터, 이앙기, 무인 자동차, 농업용 드론, 착유기 로봇 등과 같은 해외 업체의 최신 농업용 장비를 전시하였고 농업 자동화를 실현하는 다양한 협동 로봇의 시연과 함께 로봇밴드의 흥미로운 연주 무대도 갖추었습니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의 최첨단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농업 기기를 현장에서 직접 만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스마트팜의 시장 현황을 공유하며 관련 기술·제품을 접할 수 있고, 수출 및 국내 유통 등에 대한 상담뿐만 아니라 국내 농업에 대한 주요 정책들도 소개받을 수 있는 교류의 공간도 있습니다.

농식품 홍보존은 우수 농기계·농자재 및 농촌 생활용품 기업 70개사가 참여하여 관련 제품의 홍보와 판매를 하는 '농기자재관', 전라남도와 국내외의 우수 농식품을 전시하는 '농식품관' 그리고 최첨단 농기계의 현장 시연·체험을 할 수 있는 '농기계 시연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농기계·농기자재들을 구경하며 우수 농산물과 천하일품 남도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치유 체험존은 야생·희귀·반려 동물과 양서류, 관상어, 파충류, 가축, 앵무새 등을 만날 수 있는 '치유 동물농장', 놀면서 자연의 소중함을 배우고 생태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어린이 텃밭정원 놀이터', 꽃과 색의 조화가 아름다운 장미정원과 원예 체험장을 갖춘 '힐링정원', 자연의 생명력과 치유 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치유 체험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분 좋은 향기로 가득 채워진 이들 공간은 우리들의 마음을 밝고 빛나게 해줄 것입니다.

이 밖에도 온택트 시대에 발맞추어 학술행사 및 수출상담회를 온·오프라인으로 병행 추진합니다. 잘 갖춰진 멋진 무대에서 농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농업인·바이어·기업·소비자들이 함께하며 상생형 비즈니스를 구축하는 데 적극 활용해 주시고 각자의 매력을 충분히 뽐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31일까지 나주시 산포면 전남농업기술원 일원에서 펼쳐지는 미래 농업축제인 2021 국제농업박람회에 주인공이신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어려움은 있지만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운영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금도 걱정하지 마시고 가족, 동료, 지인들과 함께 마스크를 멋지게 착용하고 오셔서 기분 좋게 축제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社說

사라지는 증인들…5·18 진실 이대로 묻히나

5·18 유혈 진압의 핵심 책임자로 꼽히는 노태우(89) 전 대통령이 끝내 5·18에 대한 진실 고백이나 직접적인 사죄 없이 숨졌다. 더욱이 전두환(90) 씨마저 최근 건강이 부쩍 악화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 늦기 전에 5·18 진상 규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노 씨는 전 씨 등과 함께 1979년 12·12 군사쿠데타를 주도하고,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에 관여하면서 신군부의 핵심으로 급부상했다. 군 기록과 검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도청 앞 집단 발포가 있던 1980년 5월 21일 새벽, 주영복 국방부 장관실에 모여 계엄군의 광주 외곽 배치, 자위권 발동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는 이희성 계엄사령관, 노태우 수경사령관, 정호용 특전사령관, 전두환 합동수사본부장 등이다. 이후 노 씨는 전 씨의 후계자로서 6·29 선언을 주도하며 대한민국 제13대 대통령까지 올랐다.

하지만 노 씨는 생전에 '광주 학살의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2011년 출간한 자신의 회고록에서 '80년 광주사태의 진범은 유언비어'라고 주장해 지역민의 공분을 샀다. 노 씨의 장남인 재헌 씨는 2019년부터 수차례 광주를 방문해 아버지의 과오를 대신 사과했지만 회고록 수정 등 구체적인 사죄의 행동은 없었다. 이에 5월 단체와 광주 시민들은 '국립묘지 안장을 위한 보여 주기식 반성 쇼'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문제는 광주 학살의 핵심 증인들이 이처럼 진상 규명이 미진한 가운데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5·18 가해 책임자'로 노 씨와 전 씨 등 35명에 대한 직접 조사를 추진해 왔지만, 노 씨에 대해서는 아예 조사 시도조차 하지 못했다. 조사위는 더 늦기 전에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서둘러야 한다. 전 씨 등도 진심 어린 사죄와 증언으로 5·18 진실 규명에 협조하는 것만이 그동안의 죄업을 씻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오토바이 소음 단속 기준 더욱 강화해야

코로나19 유행이 2년째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생활 스타일이 크게 달라졌다. 그 중 하나는 '비대면' 문화 확산에 따른 배달의 급증이다. 굳이 식당을 찾지 않더라도 배달을 통해 집에서 다양한 음식들을 맛볼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배달 앱으로 인근 식당에 음식을 주문하면 배달 오토바이를 이용해 빠른 시간 내에 해당 주문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주문-배달 시스템이 자리 잡았다. 이에 따라 배달 수단인 오토바이 운행도 대폭 늘어났는데, 이와 함께 관련 사고도 대폭 증가하고 있어 문제다.

전국적으로 이륜차 교통사고는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8년 1만 7611건에서 2020년 2만 1258건으로 늘었다. 전체 교통사고에서 이륜차 교통사고가 차지하는 비율도 2018년 8.1%에서 2020년 10.1%로 증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서울 중랑구 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가 발생한 지난해 광주·전남 지역 이륜차 사고 건수는 1469건이었다. 이 가운데 사망자 수는 55명으로 나타났으며 안전모 미착용과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건수도 2만3775건에 달했다.

이처럼 코로나19 여파로 배달 오토바이가 늘면서 교통사고가 증가함은 물론 소음기나 소음 덮개 등을 떼어 버린 채 굉음을 울리며 운행하는 바람에 시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오토바이 소음 단속 기준이 기차가 지나갈 때의 소음에 맞먹는 105dB로 높게 잡혀 있어 웬만한 소음이면 단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배달 오토바이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와 과도한 소음을 막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안을 하루빨리 개정해 단속 기준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부동산 정의

'대장동 사건'이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 싼 토지를 강제로 수용해 공공기관과 민간개발자가 고층 아파트단지와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바꾼 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천문학적인 돈을 벌었다는 내용이다. 오랜 기간 몇몇 사람이 이를 기획하면서 초과수익에 대한 상한 규정을 없애고, 언론·법조·정치·행정 등과 '짬짜미'를 했다는 사실도 전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사실 이 사건의 본질적인 원인은 후진적인 우리나라 토지 이용 시스템에 있다. 우리가 거주하는 도시의 공간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의 법률에 의해 주거·상업·녹지·공업 등 각각의 용도로 세분돼 관리되고 있다. 전문가나 행정기관 등이 지리적 여건, 도로 교통, 인접 지역 등을 검토해 용도를 정한 뒤 그에 맞게 건축물의 높이나 면적 등을 법으로 규정한 것이다. 합리적인 토지 이용을 목표로 한 조치지만, 난개발 자극과 관 주도 등 지금은 그 부작용이 더 심각하다. 토지 위에 가상의 선이 그어지면 그 용도지역에 따라 토지 가치 역시 결정되기 때문이다.

토지 소유주는 자기 토지의 가치 상승을 위해 끝없이 용도지역을 높이려 들고, 공공·민간 개발업체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토지를 용도변경한 후 개발해 높은 수익을 차지하려고 든다. 용도지역이 높은 구도심을 피하고 외곽의 논, 밭, 임야를 고층아파트 단지로 개발하는 것은 이 같은 이유에서다. 게다가 공기업은 토지 수용이라는 막강한 권한으로 더 싸게 토지를 매입할 수 있으니 그야말로 땅 짚고 헤엄치기다. 민간 개발업체들이 구도심 재개발에 나서는 경우는 엄청난 인센티브로 건축물의 높이가 더 올라가 어마어마한 수익이 보장됐을 때다.

궁극적으로 용도지역제는 사익을 제한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 미국·영국·독일 등지에서 도입되기 시작했다. 제도의 원래 취지는 규제였다. 이들 국가는 오래 전부터 개발허가제, 법정밀도상한제 등을 도입하며 제도 보완에 나섰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 부동산 가격의 이상 급등이나 투기 만연 등의 원인인 용도지역제를 폐지하는 등 '토지 이용 시스템의 혁신'만이 부동산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윤현석 정치부 부장 chadol@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 220 0621 / 팩스 062 222 4918 /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FAX 222-4918〉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전남본부 220-0642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FAX 222-0195〉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